

철도 노동자 대량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가 지난해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4백4명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파면·해임 1백30명, 정직 2백51명으로 총 3백8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심지어 파업 기간에 직위해제됐던 8천4백여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고, 2월 25일 파업 '주동자' 1백38명을 추가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 파업이 '불법'이라며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의 재앙을 막으려고 영웅적인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들은 완전히 정당하다. 지난해 수많은 이들이 철도 파업에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던 것은 이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정부는 철도발전 소위를 철저히 무시하며 대량 중징계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공항철도·적자선 매각 등 철도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파업 때 그토록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던 정부의 주장은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량 징계는 철도노조의 지적처럼 "수서발KTX 민영화와 공항철도 매각, 철도공사를 6개 자회사로 분리



3월 3일 서울역에서 열린 '철도공사 대규모 징계 규탄' 기자회견

해 민영화하는 정부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지난해 파업으로 박근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던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공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2월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철도 분할 민영

화를 밀어붙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금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휘하에 대량징계와 손배·가압류를 퍼붓고, 대규모 강제 전보, 전방위적 구조조정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승진제 폐지, 성과상여금 차등격차 확대, 후생 복지제도 전면적 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개약안까지 제기했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과 전방위적 구조조정에 밀리지 말고 강력히 맞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연말 철도 파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지금도 현장 투쟁을 이어가며 여전한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대량징계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면 지난 연말 같은 광범한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만 1천 명 자회사 파견과 해고라는 끔찍한 공격 계획이 드러나다

3월 5일 <JTBC>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해고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이 담긴 국토부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은 '전출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 방안이 적법하다는 법적 해석까지 받았다.

이것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격을 감행하려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국토부는 "검토 방안의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발뻠했지만, 이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국토부는 공항철도 민영화, 적자선 매각 계획이 폭로될 때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 계

획들은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1만여 명 파견과 전출 거부자 해고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게다가 대규모 인력감축은 열차 사고 위험을 키워 대형참사를 부를 것이다.

판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 KT와 전력에 이어 철도를 타킷으로 삼아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리는 정부에 맞서 철도 민영화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노동자연대에
(옛 다함께)
가입하세요! 함께합시다!

회원 / 후원회원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workerssolidarity.org
전화번호 : 02-2271-2395

전환배치에 맞선 투쟁을 지금 본격화해야 한다

철도공사가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전 직종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몇몇 지부 등에서 현장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부채감축 방안으로 내놓은 핵심 내용에는 앞으로 4년간 4천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정상화대책추진단'까지 꾸려 강력한 '정상화' 추진에 나섰다. 올해 9백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 비용은 노동자 약 1천4백 명의 1년치 평균임금(평균근속년수 19년)에 해당한다.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1인승무,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 통합 등 구조조정은 앞으로 추진할 분할 민영화를 위한 필수적 사전 조치들이다. 그래서 사측은 웬만한 저항에는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아직 사측은 이 조치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1인승무는 시범운영 파행·무산에 이어 본 시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자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며 저항하고 있어 사측은 팀장들을 투입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열차 출발검수도 시행 첫 일주일 동안 서울차량기지, 오봉역, 성북역에서 모두 무력화됐다. 서울차량지부는 18일째 완강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3월 4일 사측은 경찰 병력을 서울차량기지 안까지 불러들이는 강경 대응을 했지만 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보복

이런 저항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 준다. 이 저항들 덕분에 사측은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를 한꺼번에 쉽사리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1인승무와 대규모 전환배치 강행이 맞물렸다면 기관사들의 파업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었다. 2월 25일 1차 경고 파업도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와 조직력이 견재함을 보여 줬다.



3월 4일 사측은 서울차량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기지 내로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투쟁들은 다른 지부들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4월부터 고양과 부산 KTX 차량 정비의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맞서기 위해 대응 논의가 시작됐다. 또, 청량리전동차승무지부 노동자들도 용문에 사업소를 신설해 3개월 단위로 30명씩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 할 계획에 맞서 법적 대응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들, 서울차량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고, 사측이 다른 지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 노조 중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 투쟁을 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모아간다면 사측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측의 강제 전환배치 계획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구체적 추진 절차까지 밟고 있다. 사측은 '희망 전보' 신청으로 일부 대상자를 채우고, 지부 간부나 투사들을 전환배치 명단에 포함시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또, 전환배치는 1인승무 시행이나 청량

리전동차 지부에서처럼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과 결합돼 추진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환배치는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크다. 이를 통해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력노조의 사례는 전환배치를 막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노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심지

전환배치 추진이 가시화되자 구로차량지부는 2월 25일 강제 전환배치 반대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구로차량 조합원들은 "명단이 나온 뒤에 싸우면 너무 늦다. 명단이 나온 후에는 대상자들만의 문제로 돼 버려 함께 싸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옳은 말이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강제 전환배치 강행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확대될 조짐이 있는 지금 전환배치 반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부장과 투사들은 각 지부나 직종들

의 투쟁을 서로 연결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건설해 투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세적 처지에 처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기대를 걸지는 않은 채 이런 정치 상황을 이용해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연말 파업에서 광범한 대중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자신감과 투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질질 끌며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KT와 전력에 이어 철도에 총공세를 퍼부으려는 정부에 맞서, 폭탄의 심지가 녹록해지기 전에 다시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



노동자연대(옛 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레프트21〉을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레프트21〉을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010-7750-1876(이정원)